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7월27일(월)
통권50호(제2권 제28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

새 기획 「북녘 산책」을 시작하며 《I-1. 함경북도》



한반도의 북한지역은 북위 37°41'00"(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남쪽 끝)에서 북위 43°00'36"(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 끝) 경도상으로는 동경 130°41'32"(라선시 선봉군 우암리 동쪽 끝)에서 동경124°10'47"(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 끝) 사이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총면적은 22만2154km²인데 북한은 12만2762km²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어느덧 하나의 한반도였을 때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분단된 한반도에서 태어난 세대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명들은 실향민들의 추억에서나 되짚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추억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억에서 반쪽의 한반도가 아닌 완전한 한반도를 떠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북녘산책이라는 새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여러 번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서 현재 9도(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1직할시(평양), 3특급시(남포, 라선, 개성), 23시, 33구역, 148군, 3특구(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 2구, 2지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도와 시를 중심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함경북도를 시작으로 개성시를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살는 순서-

1. 함경북도
2. 라선시
3. 함경남도
4. 량강도
5. 자강도
6. 평안북도
7. 평안남도

8. 평양시
9. 남포시
10. 강원도
11. 황해북도
12. 황해남도
13. 개성시

연속기획 「북녘 산책」

I-1. 함경북도(유래와 자연편)

1509년(중종4년)에 함흥과 경성의 첫 글자를 따서 함경도라고 하였다. 1896년 8도를 없애고 전국을 13개의 도로 나눌 때 함경도지방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로 갈라져, 이때부터 함경북도라는 지명이 쓰이게 되었다.

온성군 풍서리의 북부는 우리나라의 최북단을 이루고 있고, 도의 북부지방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지방과 면하여 있다.

현재 행정구역은 3개의 시(청진, 회령, 김책)와 12개의 군(부령, 경성, 무산, 길주, 화대, 명천, 화성, 어랑, 연사, 온성, 새별, 은덕)으로 되어있고, 도 소재지는 청진이다.

함경북도는 산지가 90%이상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지대가 높으며 평야가 적은 도이다. 도의 평균해발높이는 618m로서 우리나라 평균해발 높이보다 183m나 더 높다. 도의 가운데로는 높고 험준한 산줄기의 하나인 함경산줄기가 북동-남서방향으로 뻗어있다.

도에는 화산지형이 여러 곳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명천, 화대, 명간, 어랑군 등 4개 군에 걸쳐 약 250km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칠보산이다. 일곱 가지 보물이 묻혀 있다 하여 예로부터 칠보산이라 불리는 이산은 해발 659m의 천불봉을 최고봉으로 가지고 있으며, 경치가 천하절경인데다 기암괴석이 산재해 있어 '함북 금강'으로도 불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9월 남한에 추석선물로 보낸 300명분의 송이를 채취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2001년부터 제1 조총련 동포들을 대상으로 칠보산 관광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해안 지형은 비교적 단조롭다. 해안선의 길이는 449.3km(섬 제외)이며 해안절벽을 이룬 곳이 많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해안 절벽은 미사일 발사지로 유명한 화대군 무수단 해안의 단애로 높이가 78~500m에 이른다.

또한, 바닷가의 풍지로 이름난 해철보, 염분진, 왕계산과 오산덕, 산악미를 자랑하는 관모봉, 온천수도 좋고 주변풍치가 뛰어난 온포온천, 경성온천 등이 있다.

함경북도 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사민정책을 실시했을 만큼, 인구가 적은 지역이었으나 분단 후, 경제관련 시설과 대학, 문화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점차 주민 수가 늘었다고 한다.

다음 호에서는 함경북도의 경제에 대해 소개한다.

제50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2

이주의 주요 기사

북한, 광물성제품 위주 무역 구조 못 벗어나 ----- 3

상반기 남북교역 지난해의 73%에 그쳐 ----- 4

北, 식료일용공업성 신설 ----- 5

'따지지도 못하고...' 북한 미래 수입업자들 고사 직전 ----- 6

北-美 막말 공방 "철부지 10대" vs "장마당 할머니" ----- 7

북한서 만든 청바지 이달 말 첫 출시 ----- 8

남북관계 소강국면..8월 변곡점' 맞나 ----- 9

애틀랜타서 북한 미술 전시회 ----- 10

北에 패스트푸드점 첫 등장 ----- 11

Report: NKorea opens 1st fast-food restaurant ----- 12

不正輸出容疑で商社社長再逮捕 北、取引関与か ----- 13

암에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3

추천논문 / 2008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 14

퀴프로 풀어가는 北! / ----- 14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2009 '남북교류협력과 현안과제' 심포지엄
- ▶주제 : 남북교류협력과 신변보호: 현황과 과제
- ▶제1주제 : 신변보호 관련 남북합의서와 이행을 위한 제도화 문제
- ▶제2주제 : 북한 형사법과 개성공단 억류자 신변안전 문제
- ▶일시 : 2009년 07월 29일(수) 14: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법연구회

이 주의 칼럼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

북한은 왜 세계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을 무릅쓰고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은 채 위험 행동을 계속하는지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핵위협, 주권 훼손을 거론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라면 왜 부시와는 그런 대결을 안하고 오바마와 대결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요즘 북한 내부 상황 변화가 핵위기를 불러왔다는 내부 사정설이 널리 퍼지고 있다.

내부 사정설은 세 가지이다. 첫째, 김정일 건강 악화설이다. 현 인택 통일부 장관이 이 가설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그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북한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정말 김정일의 건강이 통치가 어려울 정도로 나쁜지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요즘 그는 여전히 정력적으로 현지도도를 하고 있다. 초췌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가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그는 수령이다. 의사 표현만 가능해도 통치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이다. 설사 건강 악화로 통치가 불안해졌다 해도 그렇다. 내부가 불안한데 일부러 외부 불안을 조성할까. 내부 안정에 자신이 있으니 위기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아닐까.

둘째는 강성대국 건설, 건강 악화로 다급해진 김정일이 강성대국을 2012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조기 일괄타결을 하기 위해서 전면 도발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12년 강성대국론은 지난해 1월 공표한 것으로 김정일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의 일이다. 북한은 동원체제이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동원뿐 아니라 사상적·정신적 동원 태세를 유지, 충성심을 확보하는 체제이다. 강성대국론 역시 그런 동원의 하나이다. 이명박이 7·4·7공약을 2012년까지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에 활용했던 것처럼 김정일 역시 2012년 강성대국이 어렵다는 걸 알고도 선전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강성대국 시점을 2012년 1월로 치면 2년 반, 2012년 12월로 치면 3년 반 남았다. 이 기간에 20년 묵은 북한문제를 타결짓

고, 30년 된 경제난을 풀고, 60년 넘은 대외관계 정상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위해 보유한 카드를 전부 소진할 것 같지도 않다.

셋째는 후계 체제 조기 구축설, 즉 김정운을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해 핵위기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김정운이 아버지 권력을 얼마나 물려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과거 사례와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승계 작업이 빨라졌다는 근거도 없다. 이미 압박과 제재를 받는 곤란한 처지에서 김정일이 아직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는 핵실험이란 모험을 아들 이름으로 감행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세습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외부위협을 초청은 불안을 잠재울 수도 있지만, 키울 수도 있다. 함부로 쓸 카드는 아니다. 후계 관련설은 이렇게 논리적 결함이 많다.

그런데도 복잡한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준다는 이점 때문인지 이 세 가설들이 북한 전문가·정부당국자·언론은 물론 미국의 분석가들도 애용하는, 정통한 해석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북한이란 일부는 사실, 일부는 추정, 일부는 과장의 갖은 재료들로 빚어낸 것이다. 이렇게 상상으로 빚은 북한은 북한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가 필요한 세력에게는 꽤 유용할 수 있다. 북한 내부 사정이니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으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은 어느 수준이든 외부세계와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이 향후 비핵화와 핵국가의 두 경로 가운데 어느 길을 갈지 북한에만 물어서는 안된다. 그 경로는 향후 한반도 문제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북한도 모를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의 모든 당사자들, 특히 한국이 답을 찾아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이 글의 원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21809535&code=99033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 김정일 주문 요트 2척 압수

-- 7월 20일 YTN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탈리아의 한 조선소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호화 요트 2척이 세무 경찰에 압수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리베로뉴스 인터넷판은 토스카나주 루카 지역 세무 경찰이 북한에 대한 국제 금수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비라에지오 시 조선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요트 2척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요트 두 척의 가격은 1,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문은 요트의 최초 계약자가 오스트리아 기업인에서 중국 회사로 바뀌는 등 수상한 점이 발견돼 세무 당국이 추적한 결과 돈의 흐름이 요트의 실제 고객인 김정일 위원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압수된 요트는 경매를 거쳐 매각되며 중국을 통해 지급된 북한 정부의 대금도 압류됐다고 리베로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북한, 광물성제품 위주 무역 구조 못 벗어나

-- 7월 20일 매일경제

북한의 수출입은 여전히 1차 산품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KOTRA가 발표한 '200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수출입 모두 광물성생산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화학 플라스틱과 목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광물성생산품이 4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비금속류(16.8%) 의류(10.6%) 화학 플라스틱(7.6%) 기계전기전자(7.0%) 동물성 제품(3.6%) 순이었다. 특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광물성생산품은 전년(2007년) 대비 33.5% 증가한 4억6654만 4000달러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북한은 광물성생산품, 비금속류 수출비중이 전체의 58.1%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1차산품 위주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입 역시 광물성생산품이 25.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섬유류(11.9%) 기계전기전자(11.5%) 유지 조제식료품(8.8%) 화학공업제품(7.5%) 비금속류(6.6%) 순이었다. 품목별 수입 증가는 섬유류, 유지 조제식료품, 광물성생산품에 집중됐다.

특히 북한의 가장 큰 수입 품목인 원유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됐고, 고유가 영향으로 수입액은 2007년 2억8197만9000달러에서 2008년 4억1431만달러로 전년대비 46.9% 증가했다.

곡물 수입액은 2007년 1억1586만달러에서 2008년 8624만4000달러로 전년대비 25.6% 감소했다. 지난해 곡물시장 불안정으로 쌀과 보리는 2008년 4월부터, 옥수수는 8월부터 수입이 중국으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경제소식] 백두산건축연, 새 칠감 개발

-- 7월 20일 중앙일보

북한의 백두산건축연구원 건재연구소에서 마감도장재인 진주광택칠감을 연구,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이 칠감은 금속광택칠감에 비해 수명이 3배나 길고 비싼 금속분말을 사용하지 않아 원가가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는 것이 중앙통신의 설명이다.

또 부착력이 높아 잘 씻기지 않고 금색, 붉은색, 동색, 연청색 등 여러가지 색깔이 준비돼 있으며 콘크리트, 화장석, 목재 등에 칠할 수 있다.

중앙통신은 "현재 여러 단위에서 건축용 현판, 건축장식도안, 석고제품 등을 도장하는데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철구평양공업대학에서 쑥을 이용해 만든 쑥국수를 개발했다고 중앙통신이 16일 밝혔다.

이 통신은 "대학의 연구사들은 어디서나 자라는 쑥을 간단한 방법으로 열처리해 계절성을 극복하고 제품의 질을 높였다"며 "여러 차례 실험과 분석연구를 통해 특색있는 쑥국수를 만드는데 성공하고 그 가공방법을 과학화, 표준화했다"고 전했다.

쑥국수는 맛이 독특할 뿐 아니라 씹는 느낌이 질기고 쫄깃하다고 소개했다.

중앙통신은 "국수에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한 쑥국수는 식욕을 돋구며 소화기 계통 질환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수산성 체육단에서 기존의 수영장을 국제규격의 수영장으로 리모델링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소개했다.

체육단의 림여일 단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1층으로 돼있던 건물을 2층으로 한 층 더 올리고 구인식 지붕을 씌워서 보통강 경치에 어울리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영장 바닥과 도약대를 고급타일로 교체하고 목욕탕과 헬스장, 사무실과 식당 등을 새로 갖췄다.

예소행 부단장은 "수영장이 국제수영장 규칙에 준해 50m로 되어있고 주로는 8개로 형성됐다"며 "물에 뛰어들기(다이빙)는 10m, 7m, 5m, 3m 탄성판과 함께 1m 탄성판으로 돼 있어 수영장 주로를 치우면 물에 뛰어들기 경기와 수중발레, 수구 등의 경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주민등록 재조사 시작' 의도 뭇까

-- 7월 20일 노컷뉴스

북한 당국이 통제 강화를 위해 전역에서 주민 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북한방송은 20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당국이 지난 6월 20일부터 주민등록대장(주민의 출신 성분 및 신상 명세 기재)을 갱신하고 기존 시(市)급 보안서까지만 있던 주민카드를 동(洞) 단위 보안소까지 비치하기 위한 주민 재조사 사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 재조사에서는 "인민반 별로 주민의 상반신

사진을 찍고 출신 성분과 거주지 등의 신상명세가 기재된 주민 카드를 재작성하고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실종자, 사망자 등의 주민 변동 사항을 중점 확인해 북한이 4월 150일 전투를 시작한 이후 주민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주민들의 성분을 조사해 출신성분과 사회성분 별로 핵심군중(핵심계층)과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해 계급성과 당성을 기초로 한 지위와 직업을 배치하는 계급 차별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 재조사 사업을 해왔다.

"北, 추석 이산가족상봉 제안" <민족21>

-- 7월 21일 연합뉴스

평소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해온 진보성향 월간지 '민족21'의 정창현 주간은 "북한을 다녀온 해외인사의 전언"이라며 북한이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주간은 21일 발간된 '민족21' 8월호에 실은 글에서 이 해외인사가 "북측의 고위관계자로부터 오는 10월3일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사전접촉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북의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 적십자사간 실무접촉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도 "북측이 개성회담의 연장선에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 주간은 덧붙였다.

정 주간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경우 그 배경에 대해 "10.4(남북정상)선언의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가 거부하기 어려운 사안을 제안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이 추석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제안해 올 경우 이명박 정부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반기 남북교역 지난해의 73%에 그쳐

-- 7월 21일 매일경제

관세청은 올 들어 6월까지 남북교역 규모가 6억 4천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고, 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핵 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귀금속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해, 남북교역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엔, 하반기에도 北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

-- 7월 21일 노컷뉴스

유엔이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북한에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올 상반기에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약 1천만 달러를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유엔 인도지원국의 관계자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여러 조사 자료를 검토한 끝에 10여 개의 다른 나라와 함께 북한을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지원을 받을 국가로 선정했다"면서 "필요한 사업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유엔이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올 상반기에 북한에 지원한 금액 약 1천만 달러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각 사업에 따라 북한에 지원됐다.

北 비핵화·6자회담…한국, 400억弗 지원추진, FT보도…정부선 부인

-- 7월 21일 헤럴드경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비핵·개방 3000 구상'에서 밝힌 바 있는 400억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이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대북 포괄적 패키지'에 대한 양국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포괄적 패키지는 기존 대북 협상의 틀이었던 단계적 보상과는 달리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 번에 교환하는 것으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고 이후 미국이 적극 모색 중인 북한 비핵화 방안이다.

FT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골드먼삭스에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 각국 정부들로부터 400억달러의 자금을 모아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이 북한 정부에 제시할 '당근'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400억달러의 용처에는 ▷5개 자유무역지역 조성 ▷300만달러 규모 이상의 100개 수출기업 육성 ▷철도와 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 건설에 국제사회 협력 ▷30만명의 산업인력 육성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FT 보도와 관련해 "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 지원 액수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방한했던 캠벨 차관보나 골드먼삭스와 (지원금과 같은)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北, 수학올림피아드 5위…한국은 4위

-- 7월 22일 노컷뉴스

독일의 베르멘에서 열린 제5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북한이 한국에 이어 역대 최고인 5위의 성적을 올렸다.

북한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이운송, 김정철, 이용현 학생이 금메달 3개를 따고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차지해

총점 183점으로 전체 104개 참가국 가운데 5위를 기록, 이 대회에 참가한 이래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 참가단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이사인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는 21일 시상식과 폐막식을 마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운송 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회에 처음 참가한 학생들이지만 수학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대회 현장에서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수학에는 국경이 없고 갈등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북한 학생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해 다른 국가들의 교육 수준을 비교하고 국제적 흐름을 체험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다른 나라와 달리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적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는, 미리 선발된 200~300명의 학생 중에서 예비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표를 선발하고 1,2위를 다투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수학 교재를 받아 수학올림픽아드를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대북 금지품목 금융서비스 금지"

-- 7월 22일 연합뉴스

스위스 연방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지난 1일 제재강화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발표하고 대북 금지품목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금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는 지난 2일 발효된 시행령에서 "금융자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더 구체화해 대북 금지품목과 관련한 금융서비스를 금지했다"고 VOA는 설명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대북 무기 금수조치의 대상이 탱크, 공격용 헬기와 같은 중화기에서 모든 무기와 관련된 물자로 확대됐다고 VOA는 전했다.

스위스 정부는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추가 제재조치에 맞춰 후속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초 발표한 시행령의 부속서를 개정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인물과 기업, 기관들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北, 식료일용공업성 신설

-- 7월 22일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2일 정령을 통해 식료일용공업성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정령 제161호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일용공업성을 내온다"고 짧막하게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직의 성격이 '성'(省)이라는 점에서 내각 산하 신설 부서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각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당시 3 위원회, 30개 성, 1원, 1은행, 2국 등 37개 기관으로 발표됐으며, 이번 식료일용공업성이 내각에 신설된다면 내각 구성기관이 38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북한의 식료일용공업성 신설 조치는 북한 당국이 2012년까지 '강성대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생활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北 조선중앙TV, 김정일 3월분 기록영화 방영, 건재 과시

-- 7월 22일 헤럴드경제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3월 주요 경제시설을 현지 지도했던 기록영화를 22일 오후 6시에 방영했다.

약 40분 분량으로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희천발전소를 시찰하는 모습을 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경제 여러부문 사업현지에서 지도(주체 9 8.3)'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번 기록영화는 그의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목표 기한의 절반을 지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150일 전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 담배 100만 갑 밀수 혐의 北 선적 나포

-- 7월 23일 뉴시스

키프로스 당국은 담배를 100만 갑 가까이 이집트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북한 선적 화물선 1척을 나포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키프로스 법원은 '프린스(Prince) T'호의 이집트인 선장을 비롯 1명의 레바논인과 2명의 시리아인 선원에 대해 당국이 조사하는 벌이는 8일간 구금을 명령했다.

키프로스 세관 관계자는 밀수 담배는 70만 유로(99만3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패키지,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등 망라"

-- 7월 23일 연합뉴스

'비가역적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제공할 이른바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는 북.미 관계정상화 외에 평화체제와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북 압박 조치를 지속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23일 "미국이 마련한 포괄적 패키지에는 전면적인 관계정상화 외에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에너지 및 경제지원이 모두 담겨있다"면서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이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협의해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비가역적 조치의 기준으로 2005년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서 규정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9.19 공동성명에 규정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는 현재도 유효하며 북한이 이를 준수할 경우에만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따지지도 못하고...' 북한 모래 수입업자들 고사 직전

-- 7월 23일 노컷뉴스

북한의 로켓 발사 등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길게 이어지면서 북한모래 수입업체 등 대북 무역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북 무역업체들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 북한모래 수입을 통해 급성장을 한 모래수입업체 A사는 벌써 3개월째 직원 30명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개성공단 민간인 억류 이후 통일부가 지난 4월 초 선박운항을 중단시키면서 북한으로부터 모래 수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북한모래 반입 등을 위해 북한에 지불한 선금만 135억 원에 달한다. 한 달에 나가는 은행 이자비용만 3000만원. 직원 월급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돌아오는 어음을 돌려막기에 정신이 없다.

또 다른 업체 B사는 북한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선박 2척을 수입했다. 대당 가격만 70억원. 그런데 이 배들을 놀리면서 금융비용만 늘고 있다.

이 업체는 정상조업을 할 때 월 14만㎥(덤프트럭 8200대 분량)를 북한 해주 앞바다에서 채취해 인천항으로 들여왔다.

북한 모래 1㎥의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만 계산해도 월 14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을 최대한 존중해 왔지만 이제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됐다"면서 "모래 반입 허가만 마냥 기다리다 부도가 나면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현재 북한모래 수입업체들은 '해상 선박시위'와 '정부청사 앞 시위' 등을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모래 수입이 중단되면서 업체들이 몰려있는 인천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보통 북한에서 모래채취선이 모래를 가져오면 인천의 19개 모래하역장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진다. 이어 모래에서 조개와 자갈 등을 골라내는 분류작업을 거쳐 염분제거를 위한 세척작업이 진행된다.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면 덤프트럭이 동원돼 수도권의 공사장과 레미콘 공장 등으로 운송작업이 시작된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모래 채취와 하역, 세척, 운송 과정에서 수 천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해 그동안 인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 옹진군 김득년 지역경제과장은 "북한모래 수입의 중단은 하역과 운송물량의 감소를 초래해 당연히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옹진군 내 바닷모래 채취도 지난 5월 29일로 허가기간이 끝나 당분간 예전처럼 활기찬 모래하역장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농수산물 수입업체도 모래 수입업체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속앓이'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는 파나마 등 제3국 국적선을 통해 농수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일단 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직원들의 방북 허가가 나오지 않아 북한 현지에서 수입 농수산물의 검품 및 검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또 직접 얼굴을 맞대고 단가를 협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점도 대북거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의 경우 기온미달품이 속출하고 있지만 반품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에서 조개류와 냉동 새우, 미꾸라지 등을 전문으로 수입하는 C사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20억 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최근에는 절반 가량으로 툭 떨어지면서 직원 수도 20명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북한 현지에서 직접 검품을 할 수 없어 품질보증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북측에서 단가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 교역규모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 모래 반입을 위한 선박 운항과 대북 무역업체의 방북을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 통일부는 '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통일부는 특히 지난 5월 27일 북한군 관문점대표부가 우리나라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비난하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모래 수입업체 등 대북 무역업체의 안타까운 사연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남북관계가 너무 엄중해서 선박운항과 방북 허가 등의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성공단은 여전히 공장 가동이 이어지고 있고 제한적이지만 통행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인사는 "정부가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대북 교역을 일방적으로 막아놓고 이를 민간기업 차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에 출구 열어놓기 공조...사실상 '5자협의' 성사

-- 7월 23일 헤럴드경제

22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한 각국 외교장관들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나머지 5개국은 양자회담을 연쇄적으로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이행 의지를 다지는 한편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5자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5자협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대북 포괄적 패키지 제공' 방안을 연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출구 열어놓기'에 적극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고 "북한이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동의하면 우리는 관계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미국과 파트너들은 보상과 북미관계정상화 기회 등이 포함된 패키지를 진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우리측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북핵의 비가역적 폐기를 위한 포괄적 해결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비롯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특히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결의 이행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과도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외교소식통은 "5자협약은 당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향후 협상 복귀를 염두에 둔 5개국간 긴밀한 협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날 연쇄협의를 5자간 협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회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ARF 참가 27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가 열린다.

의장국인 태국이 ARF 전체회의가 끝난 뒤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표현 수위와 북한의 입장이 포함될 지 여부 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北-美 막말 공방 "철부지 10대" vs "장마당 할머니"

-- 7월 24일 노컷뉴스

"북한은 마치 관심을 끌려는 꼬마이자 철부지 10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

"그 여자'는 때로는 소학교 여학생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장마당에나 다니는 할머니 같다"(북외무성 대변인).

북한과 미국의 원색적인 막말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북한 외무성은 23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여자", "소학교 여학생", "장마당 할머니" 등의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인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클린턴 장관이 20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과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철부지 10대들에 비유한 것에 대한 응수인 셈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횡설수설하기를 좋아하는 '그 여자'를 우습게 보고 있다"면서 "그의 말만 들어봐서는 전혀 지능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클린턴 장관의 "철부지 10대" 발언에 대한 북한의 이같은 응수는 과거 부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피그미', '폭군' 등으로 비난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부시 대통령을 '불망나니', '도덕적 미숙아' 등으로 공격했던 때를 방불케했다.

이 같은 북한측의 막말 공격에 즉각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2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클린턴 장관을 대신해서 맞대응에 나섰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비열한 것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보다는 미사일을 '수확'하기로 작정한 일이며, 우둔한 것은 북한 정부가 선택한 길"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또 "클린턴 장관이 북한을 위해 확실한 길을 제시해줬지만 결국 북한이 그 같은 대안을 선택할 현명함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했다.

北 "포괄적 패키지 말도 안돼"

-- 7월 24일 서울신문

23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이 제안한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와 관련,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북한 대표단의 이홍식 외무성 군축국장은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포괄적 패키지는 말도 안 된다"면서 "현재의 위기는 미국의 적대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포괄적 패키지 제공의 전제로 내세운 '비(非)가역적 비핵화'에 대해 "부시 정부에서 나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발언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가 포함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포괄적 패키지'를 밝힌 것에 대한 반발이다.

힐러리 장관은 북한의 비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단호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밤 주최국인 태국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의장성명을 최종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북한의 주장도 대부분 반영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장성명은 한반도 관련 내용을 담은 7항에서 "일부 국가들의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며 "그들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874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항에선 "북한은 미국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를 인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거부했

다.”면서 “북한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고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서 만든 청바지 이달 말 첫 출시

-- 7월 24일 노컷뉴스

북한에서 자본주의 문화의 상징으로 착용이 금지된 청바지가 스웨덴 업체를 통해 평양에서 생산돼 이달 말 시판된다.

오는 27일 북한 방문에 앞서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노코진스' 회사의 제이콥 올슨, 라우든 카엘스티젠, 제이콥 에스트롬 등 3명의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품의 출시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갖고, 북한에서 만든 유럽풍의 청바지를 이달 말에 출시하게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노코진스' 회사가 이번에 북한에서 생산한 청바지는 3명의 공동대표가 직접 디자인한 남녀 청바지 각각 두 종류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수용이 아닌 모두 수출용으로 알려졌다.

'노코진스'는 청바지의 홍보를 위해 이미 모델을 기용해 화보와 동영상의 촬영을 마쳤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nokojans.com/>)를 통해 사전 주문도 받고 있으나, 아직 가격대와 수출 판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노코진스'의 대표단은 지난해 7월 북한을 방문해 2009년부터 북한에서 청바지의 위탁가공 사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이번에 1천벌을 처음 출시하게 됐다.

이보다 앞서 에스트롬 공동대표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북한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값싼 노동력과 고급 기술, 그리고 북한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청바지라는 희소 가치로 특별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혔다.

한편 '노코진스'사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광고 전문가와 음악가 출신의 청년 3명이 모여 2007년 만든 회사로, 회사 공동대표들은 어릴적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알고 싶었고, 이를 위해 북한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이들은 특히 청바지는 북한에서는 한번도 생산된 적이 없는 상품이지만,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인들이 즐겨 입는 의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처음에 북한 내 최대 의류 공장에 직접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하고 지난해 스웨덴에 주재한 북한 대사관과 청바지 위탁가공사업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북한을 방문해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한편 북한에서 청바지는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착용이 금지돼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23개 품목 추가

-- 7월 24일 전자신문

원격 통신, 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 광센서, 세라믹 밸브 등이 재래식 무기나 테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분류돼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됐다.

지식경제부는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정하는 산업용, 군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일부를 개정·보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총 76개 통제 품목이 개정됐으며 이중 신설 및 추가 통제된 품목이 23개로 통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통제기준 완화품목은 8개이며, 나머지 45개는 규격·사양 등이 수정됐다.

새로 통제 대상에 들거나 신설된 품목은 폭발물 자동탐지, 급조폭발물 신화학물질, 독성가스 감지 시스템, 원격 통신, 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 광센서, 잠수부 음향시스템, 세라믹 밸브, 잠수정 등이다. 또, 통제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탄소섬유 산업용 장비, 주문형 집적회로, 음파장치, 정밀 센서부품, 주파수 합성 신호발생기, 컴퓨터 시스템 등이다.

특히, 지경부는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지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 등에 따른 국내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허가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RF 의장성명 채택..北주장도 반영

-- 7월 24일 Y수

ARF, 아세안지역안보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의장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북한의 주장도 대부분 반영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장성명은 7항에서 “일부 국가의 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결의안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8항에서는 “북한은 미국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인정하지 않고, 전면 거부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은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는 표현까지 담았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인터뷰> 리홍식 /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미국의 뿌리 깊은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도 이미 종말을 고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터뷰> 유명환 / 외교통상부 장관 =“우리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현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의장성명이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다 의장국

인 태국이 북한측 주장을 대거 반영해, 외교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북한 대표단은 회의장 도착 직후 태국 외무장관과 회동한데 이어 회의 기간 태국 외무 부장관을 만나 북한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소강국면..8월 변곡점' 맞나

-- 7월 24일 연합뉴스

소강국면을 보내고 있는 남북관계가 '8.15'와 한미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있는 8월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달 초 이후 남북 간에는 대화도, 북한발 위협 및 대남 도발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유일한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인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지난 2일 3차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이후 기약없는 '휴지기'를 보내고 있다.

북측은 지난 1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측이 향후 회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천명한대로 우리의 결심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 놓지 않고 있다.

대남 위협 측면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빌미삼아 지난 5월27일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우려됐던 서해 등에서의 도발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독립기념일(7.4) 직전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시험발사, 한때 긴장감을 고조시켰지만 그 이후 군사적으로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부터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여만 가던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을 끌고 가는 것을 두고 '북미관계 조기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기댈 여지를 남겨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과 '대미관계에 집중하느라 대남 분야는 일시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속내'가 안개 속인 지금 우리 정부도 북한에 접근할 움직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후속 개성공단 실무회담 추진 일정도 잡지 않고 있고 로켓발사 및 핵실험 이후 계속하고 있는 민간인의 방북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6.15남측위 산하 학술본부가 제3국에서 북측 인사와 실무협의를 갖기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정부의 대북 기조를 짐작케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이 같은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어떤 방향으로든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던질 대북 메시지가 1차 변수로 꼽힌다. 북미관계가 미국의 '포괄적 패키

지' 언급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도 8.15를 계기로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및 대남 태도변화를 강조하는 원칙적인 대북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만약 8.15 이전에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에 진전이 이뤄져 미측 고위급 인사가 방북하는 등 북미관계에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보다 유연하고 과감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24일 "현재 남북관계는 '관망기'인데, 8월 '북미변수'가 어디로 튈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도 그에 연동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에 모종의 전략적 입장을 표명하려면 8.15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기회가 지나가면 상당기간 다음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또 다른 변수로는 8월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한.미 합동 UFG 연습이 꼽힌다.

한.미는 기존 연합방위체제의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대신해 공동방위체제에 적용할 공동작전계획을 8월 UFG 연습에 처음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즉 북한이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때 했던 것처럼 UFG기간 군 통신선을 끊고 남북간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경우 개성공단이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긴장지수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中 '해방차'트럭 상반기 北에 750대 수출

-- 7월 24일 연합뉴스

중국 최대 트럭 제조업체인 이치제팡(一汽解放)자동차판매회사가 올 상반기 북한에 750대의 트럭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투자조선(投資朝鮮)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트럭 제조업체로, '해방차'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이 회사는 단둥(丹東)의 황하이(黃海)자동차조립공장과 공동으로 북한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 올 상반기 750대의 트럭을 북한에 수출했다.

북한에 수출되는 트럭은 운전석 앞 부분이 튀어나온 '제팡' 모델과 샤오진뉴(小金牛) 덤프트럭이 주종을 이뤘다.

올들어 이 회사의 대북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은 제조 기술의 향상으로 차량 성능이 좋아진데다 지리적 접근성과 가격 메리트 등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투자조선은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자원개발에 나설 경우 중형트럭의 잠재 수요가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농업용 차량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치제팡의 대북 트럭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북한에 수출되는 화물 차량이 모두 민수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화물 트럭 대량 구매력이 있는 집단이 군부라는 점에서 군수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北 최대 안과병원, 이동치료 활발

-- 7월 24일 연합뉴스

북한 유일의 안과전문병원인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의 의사들이 '이동치료대'를 구성, 북한 전역을 돌며 환자 치료와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4일 소개했다.

이 병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한국라이온스협회의 지원으로 건립됐지만, 조선신보는 이 사실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병원 류은희(48) 원장에 따르면 의사들은 2006년부터 이동치료대를 구성,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성진제강소 등 주요 공장, 기업소와 마을을 찾아 지난 3년 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과 일반 안과 치료를 해줬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동치료대는 함경남도 함흥시, 강원도 안변군과 원산시, 량강도 백암군, 대흥단군, 삼지연군, 평양시 강동군을 비롯해 평양과 지방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주민지역을 찾아 치료를 진행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동치료대는 수술현미경, 세극등현미경, 직상경, 소작기, 관류흡입기, 미세수술도구, 소모품, 의약품 등을 차량에 싣고 각 지역의 군 또는 도인민병원에 나가 진료를 펼친다.

치료대 의료진 "대다수가 독일, 인도, 네팔, 중국 등 외국에서 풍부한 실습 경험을 가진 인재들"로 30대이다.

이 병원은 한국라이온스협회 주도로 국제라이온스협회의 150여개 회원국에서 모은 800만 달러(80억원)가 투입돼 2005년 6월15일 평양 통일거리에 건립됐으며, 연건평 1천 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76개 병상을 갖춘 북한 최대의 안과병원이다.

애틀랜타서 북한 미술 전시회

-- 7월 24일 연합뉴스

북한 미술 전시회가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애틀랜타 다운타운 그래니트 룸에서 개막된 북한 미술 전시회에는 풍경과 동물, 꽃 등을 주제로 한 북한화가 14명의 작품 24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 작품에는 백두산(리해룡), 구월산의 봄(박성실), 호랑이(박차남), 장미(김기민), 새우(김기만), 산악의 수리개(정창모), 보동강반에서(김성호), 내 고향으로 가는 길(김춘진), 묘향산 주구봉의 아침(조병주.김금성), 금강산 칠구봉의 아침(선우영)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북한에서 나름대로 예술적 재능이 확인된 인사들에 부여하는 공훈예술가 3명과 공훈예술가중에서 도 특출한 예술적 성과를 거둔 작가에게 붙여지는 인민예술가 5명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작품들은 1995년 이후 완성된 최신작들로 한지를 이용해 그린 동양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시회가 성사되기까지에는 중국 상하이의 미디어 회사에서 프로듀서로 활동중인 미국인 마이클 브레이밴드씨의 노력이 담겨있다. 전시작품들도 모두 그가 3년간 북한을 방문해 수집한 작품들이다.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브레이밴드씨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5년전 북한의 나진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06년 여름 북한의 예술 갤러리를 방문하게 됐다"면서 "이후부터 북한의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미술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미술인들과 나름대로 우정을 쌓게됐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치적 이념을 넘어 미국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북한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1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는 특히 17일 개막식에 이어 24일 함경남도 출신의 가야금 연주가 유순형씨(72)가 참석해 한국 전통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브레이밴드씨는 "미국에서는 사실 처음 열리는 전시회여서 걱정이 많이 됐으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시회장을 찾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개막 첫날, 2점의 그림이 경매를 통해 이미 판매됐다"고 말했다.

브레이밴드씨는 전시회 후원금과 2회 경매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캐나다 비정부단체가 북한에 설립한 두유공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전시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수년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의 프로젝트에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미국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에티오피아에 의료진 32명 파견

-- 7월 24일 노컷뉴스

북한이 에티오피아에 의료진을 파견해 앞으로 2년 동안 병원에서 의료 지원과 교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 보건국의 공보 관계자는 24일 총 32명의 의료진 가운데 27명이 지난 21일 에티오피아에 도착해 오로미아(Oromia), 티그레이(Tigray) 등 각 지역의 병원에 배치돼 환자를 돌보고, 에티오피아 의료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보건국의 공보 관계자는 북한이 의료진을 에티오피아에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북한과 에티오피아 간 의료 협력에 관해 맺은 협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북한 의료진은 앞으로 2년 동안 머물면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2007년 북한 내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미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2005년에는 북한에서 36만 달러어치의 소형 무기를 사들여 세 번째로 큰 북한의 무기 수입국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 민간 남북협력기금 지원 재개 방안 검토

-- 7월 25일 노컷뉴스

정부가 그동안 유보해왔던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유관부처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교류협력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 다음 주 열릴 남북 교류협력 추진위원회에서 기금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1백억원 쯤의 규모로, 올해엔 북한의 핵실험과 남측 근로자 억류 문제가 불거져 기금지원이 유보돼 왔습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 폭우 34명 사망 실증

-- 7월 25일 노컷뉴스

북한 양강도 해산시를 강타한 국지성 폭우로 34명이 사망·실종되고 단층 주택 41채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월 11일에 내린 폭우로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과 탑성동, 해화동 골짜기로 물이 넘쳐나며 41채의 단층집이 허물어지고 3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전했다.

이번 폭우로 "보통 한 채의 살림집에 2~3세대, 어떤 집은 4~5 세대가 함께 살고 있어, 적어도 100여 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장, 기업소 인력이 총동원돼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복구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9일부터 18일까지 북한의 27개 관측지점 가운데 자강도 중강을 제외한 26개 지점의 강수량이 22년(1973~1994년) 간의 평년치를 일제히 웃돌았으며, 최근 9일 동안 북한 서해안과 남부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밝혔다.

북에 패스트푸드점 첫 등장

-- 7월 25일 헤럴드경제

북한의 평양 금성내거리에 지난 달 초 '속성음식센터'(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문을 열었다고 제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5일 보도했다.

평양 모란봉구역 긴마을 2동, 4.25문화회관과 사거리들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건물 2층에서 영업 중인 이 가게는 "새 것에 민감한 시민들 속에서 화제를 모으는 속성음식센터"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이 가게의 '협조대상'이 "위홀(와플) 판매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기업"이라며 "싱가포르측은 설비만 제공하고 노력과 음식의 원자재는 모두 조선(북)측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식 패스트푸드점인 점을 강조했다.

종업원들은 개업에 앞서 싱가포르 측이 파견한 담당자

로부터 '요리기술과 봉사방법에 관한 견습'을 받았지만 '요리의 맛'은 품평회를 거듭해 북한 주민의 구미에 맞게 다시 개발했다.

신문은 이 가게가 "언뜻 보기에는 차림표나 음식점의 내부장식 등이 다른 나라에 있는 햄버거 전문점의 인상과 비슷해, 일부 언론들은 마치 조선에 맥도날드와 같은 서양식 식생활 문화가 유입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태성청량음료점의 지향은 남들의 모방이 아니라 '조선식 속성음식 센터로서의 발전'으로 현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가게의 차림표는 햄버거 대신 '다진 소고기와 빵', 와플 대신 '구운 빵지짐'이라는 표현을 쓴다.

다른 메뉴는 100% 광어로 만든 '다진 물고기와 빵', 지방이 많은 음식을 싫어하는 손님을 위한 '남새(채소)와 빵'이 있으며 '다진 소고기와 빵+ 감자죽+ 김치'로 된 '정식' 메뉴도 있다.

음료는 '각종 탄산물'과 '금강생맥주'를 제공한다.

'인민들이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된 음식 가격은 다진 소고기와 빵이 190원(1.2유로), 금강생맥주가 76원(0.4유로)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20대 여성 위주의 종업원 15명은 요리와 서빙을 함께 한다.

메뉴판은 한 달에 한번 갱신되며 앞으로 초승달 모양의 빵 '크로와상'과 '핫도그'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신문은 특히 "이용자들에게 참신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음식점의 내부장식과 같은 겉보기보다 누구나가 짧은 시간에 손쉽게 식사할 수 있게 한 새로운 봉사방식"이라며 "'속성음식'이라는 조어 자체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게는 "국내의 원자재를 쓰면서 인민들이 처음 보는 요리, 간편한 식사차림표를 연달아 내놓게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평양 시내에 분점을 개업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미국에 양자 직접 대화 제의

-- 7월 26일 YTN

최근 폐막된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RF 회의에서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구상을 거부했던 북한이 북미 양자간 직접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례적으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선호 대사는 6자회담 복귀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영원히 6자회담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유는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양자간 직접 대화는 가능하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신선호 대사는 "북한은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나 협상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화 가 없었던 것은 북한 탓이 아니며, 북한은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견을 취재한 일본 언론은 신선호 대사가 북미간 직접 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신선호 대사는 또 북한의 유엔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부인했습니다.

Report: NKorea opens 1st fast-food restaurant 북한이 처음으로 패스트 푸드점을 열다

-- 7월 25일 The Wall Street Journal

출처 <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gmunrICkNn3uTAJDMEb253PvxIfgD99LF6DOO>

SEOUL, South Korea — You still can't get a hamburger in Pyongyang, but the suspiciously similar "minced beef and bread" is for sale at the North Korean capital's first fast-food restaurant, a news report said Saturday.

The Samtaeseong restaurant opened in the isolated communist country last month in cooperation with a Singaporean company, according to the Tokyo-based Choson Sinbo. The Singaporean company, which the newspaper did not name, provided training to restaurant staff and supplied equipment.

The restaurant's interior appears to be styled after fast-food joints the world over, but the menu is careful not to call its signature fare a hamburger — lest it give the impression North Koreans had embraced the American icon.

North Korea's authoritarian government is concerned that outside influences could undermine the regime and pose a threat to leader Kim Jong Il's tight grip on the nation of 24 million. It balks at using foreign words and coins alternatives in Korean instead.

But this is not the government's first foray into foreign food. In March, the Choson Sinbo, widely considered a mouthpiec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ported that Kim — a noted gourmand — had ordered the opening of the country's first Italian restaurant. The chefs there were trained in Italy and food made with imported ingredients was served.

The restaurants are unlikely to be frequented by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 which is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nd experiences chronic food shortages.

The minced beef and bread at the new fast-food restaurant costs only \$1.70, the newspaper said, but that would eat up more than half of the average North Korean's daily income. South

Korea's central bank put last year's average per capita income at \$1,065.

The restaurant also offers kimchi — Korean pickled cabbage — as well as waffles and draft beer. It plans to add croissants and hot dogs to its menu in the coming months but with Korean names, and will open another branch in the capital soon, according to the newspaper.

여러분은 아직 평양에서 햄버거를 살 수 없다. 하지만, 도쿄 『조선신보』에 의하면, 다진 고기를 넣은 빵은 지난달에 북한의 수도에 처음으로 오른 첫 패스트 푸드점인 삼태성 식당에서 판매중이다.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싱가포르회사는 삼태성 식당과 협력관계이고, 그 식당에 직원을 훈련시키며,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그 식당의 내부인테리어는 전 세계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맞게 갖춰져 있지만, 메뉴는 북한이 미국의 아이콘을 포용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음식명을 햄버거로 칭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인다.

평소 북한 정권은 외부영향이 정권을 과소평가하고, 김정일의 2400만 국민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외국어 사용을 금하고 대신 한국어로 바꾸어 쓰도록 하고 있다.

사실 이번이 외국음식의 첫 도입은 아니다. 『조선신보』에 의하면, 3월에 김정일은 첫 이탈리아식당을 열 수 있도록 했고, 이탈리아에서 훈련된 요리사와 수입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가난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은 그 식당을 자주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새로 오른 패스트푸드점의 다진 고기가 들어간 빵은 겨우 1.70달러지만, 그 금액은 북한 사람 평균 하루 수입의 반 이상에 해당한다. 식당은 또한 와플과 생맥주 뿐만 아니라 김치도 제공하고, 다음 달에는 코로아상(반달모양의 롤빵)과 핫도그도 다른 한국어로 명명하여 메뉴에 추가될 계획이며, 곧 다른 지사도 오픈 예정이다.

<北朝鮮制裁>資産凍結の追加、24日から実施
<북한 제재> 자산 동결 추가, 24일부터 실시

-- 7월 23일 마이니치신문

政府は23日、北朝鮮の核実験実施を受け、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制裁委員会が指定した5団体・5個人の資産凍結を24日から実施すると発表した。財務省から各金融機関に伝える。5個人の日本への入国防止の徹底も確認した。

政府は06年、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を受けた国連安保理決議に基づき、15団体・1個人の資産を既に凍結している。

정부는 23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5개 단체와 개인 5인의 자산 동결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무성은 이러한 사실을 각 금융기관에게 전한다. 다섯 명의 개인에 대한 일본 입국 방지도 철저히 확인한다.

정부는 이전에도 2006년부터 이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북한의 15개 단체와 개인 1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北朝鮮に 食料省 国民生活向上への取り組みをアピール? 북한에 식료성, 국민생활 향상에의 대처를

어필?

-- 7월 23일 산케이신문

平壤放送などによると北朝鮮は22日、内閣に「食料・日用工業省」を新たに設置したと発表した。最高人民會議（国会）常任委員會の政令に基づくもので、北朝鮮にはこれまで農業省や水産省、輕工業省などはあったが「食料」と銘打った政府機關はなかった。

今回の発表は金正日政権が、北朝鮮の長年の最大課題である食糧問題をはじめ国民生活向上のために努力していることを国民に印象付ける意味があるものとみられる。北朝鮮は現在、当面の国家スローガンである「2012年強盛大国」を目標に核・ミサイル開発など軍備拡張の一方、各種の増産活動など国民総動員の「一五〇日戦闘」を進めている。

『평양방송』 등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내각에 「식료·일용 공업성」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한 것으로, 북한에는 지금까지 농업성이나 수산성, 경공업성 등은 있었지만 「식료」라고 이름을 붙인 정부기관은 없었다.

이번 발표는 김정일 정권이, 북한의 오랜 세월의 최대 과제인 식량 문제를 비롯해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부각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당면 국가슬로건인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핵·미사일 개발 등 군비 확장과 함께 각종 증산 활동 등 국민총동원의 『150일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不正輸出容疑で商社社長再逮捕 北、取引関与か 부정수출 혐의로 상사 사장 다시 체포. 북, 거래 관여했나?

-- 7월 25일 산케이신문

大量破壊兵器開発に転用可能な物資をミャンマーに不正輸出しようとした事件で、別の物資を輸出したとして、神奈川県警外事課は24日、外為法違反（無許可輸出）容疑で、貿易会社「東興貿易」（東京都新宿区）社長で朝鮮籍の李慶鎬被告（41）＝同法違反（無許可輸出未遂）罪で起訴＝を再逮捕した。

県警では、ミャンマーと国交のある北朝鮮が取引に関与した疑いがあるとみて捜査を進める。

県警の調べによると、李容疑者は昨年11月、ミャンマーにミサイル開発などに使われる小型円筒研削盤1台（約300万円相当）を、経産相の許可を得ずに名古屋港から輸出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小型円筒研削盤は磁石の製造過程で使用され、ミサイル制御装置の中核部品に使われる磁石の研削に有用であるほか、核開発への利用も可能という。

カナガワ県 경찰 의사과는 24일 대량 파괴 무기 개발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미얀마에 부정수출을 하려고 한 사건으로, 무역회사 『토우코우 무역』(도쿄도 신주쿠구) 사장인 조선국적의 이경호 피고(41, 동법 위반<무허가 수출 미수>죄로 기소 중)를 외환법 위반(무허가 수출)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현 경찰은 미얀마와 국교가 있는 북한이 거래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용의자는 작년 11월 미얀마에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는 소형 원통연삭반 1대(약 300만 엔 상당)를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 없이 나고야항에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형 원통연삭반은 미사일 제어장치의 핵심 부품에 필요한 자석 연삭에 사용되는 외에 핵개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 최승희 창작무용극 50여년만에 복원

○ 북한이 일제강점기에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무용가 최승희(사진)씨의 창작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1956)를 50여년 만에 복원해 내년 재연할 예정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3일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무용극 재연을 두고 북한 무용 관계자들은 ‘조선무용을 세계적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릴 계기’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도성’이라는 성에 쳐들어온 왜적들에 대한 백성들의 투쟁과 그 과정에 싹튼 성주의 딸과 한 어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사도성의 이야기>는 4장으로 구성된 1시간 20분짜리 무용극으로 최씨가 대본, 안무, 연출을 도맡았었다.

北, 백두산 기슭에 군민식물원 조성

○ 북한의 백두산 기슭에 군민식물원이 조성돼 30여만 그루에 달하는 갖가지 나무모들이 자라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소개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4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백두산 기슭인 삼지연읍 거리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허향령 기슭에 군민식물원이 조성돼 30여만 그루에 달하는 갖가지 나무모들이 뿌리내려 풍만한 식물상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식물원에는 “백두산 일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깔나무와 마가목, 진달래, 철쭉을 비롯한 돌배나무, 참나무, 피나무 등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나무와 산나물, 약초밭, 아름다운 화초포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 논문

200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북한의 2008년도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29.7% 증가한 38억 1,600만 달러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23.0%와 32.8% 증가한 11억 3천만 달러, 26억 8,5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90년 이후 최대 적자인 15억 5,300만 달러로 여전히 수입비중이 훨씬 큰 대외무역구조의 특성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05년도 52.6%, '06년도 56.7%, '07년도 67.1%에 이어 2008년도에도 73.0%로 대중 교역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중수입은 최근 10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대중 무역 규모와 무역수지 적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뒤를 이어 싱가포르(3.2%), 인도(3.2%) 러시아(2.9%), 브라질(2.1%) 이 대북한 교역 비중의 2-5위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는 광물성 생산품, 비금속류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58.1%를 차지하며 여전히 1차 산품 위주의 수출산업 특성을 보였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광물성 생산품은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는 광물성 생산품, 섬유류 등에서, 감소는 동물성, 식물성 제품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은 북한의 어려운 외환사정, 중국의 식량수출 통제정책,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식량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남북교역은 남북관계 경색을 반영하여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08년도의 총 교역액은 1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의 소폭 증가하여 90년대 이후 최대치의 성장세를 보인 대외무역과 대비되었다. 대북 반입은 21.8% 증가한 9억 3200만 달러였으나 대북반출은 8억 8,800만 달러로 14.0% 감소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업적 거래(교역+협력사업)는 전년대비 19.7% 증가한 17억 1,200만 달러였으나 지원의 비상업적 거래는 식량과 비료 지원 중단이 영향을 주어 전년 대비 70.5%나 감소한 1억 달러에 그쳤다. 또한 상업적 거래에서도 4억 1천만 달러의 위탁가공과 8억 1천만 달러의 개성공단사업은 각각 24.8%와 83.2%가 늘어난 반면에 일반 교역은 4억 달러로 23.4%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2008년 북한은 국제금융위기의 악화,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 등 열악한 대외여건 속에서 '91년 이후 최고치의 총 교역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투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이 대외무역의 외형을 확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남북교역은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증가세의 둔화는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의 격감과 남북관계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일반 교역의 감소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감소세가 지속될 뿐 아니라 그나마 둔화된 증가세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단사업과 위탁가공도 위협받을 수 있다.

2009년도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정부 정책 불변 등의 악재 속에서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이 어떤 궤적을 그리며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OA_YLc0l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IVRS82X0VfoE1M?1=1&submenu=1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퀴즈로 풀어가는 北!

화산지형으로 함경북도의 명천, 화대, 명간, 어랑군 등 4개 군에 걸쳐 약 250km²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산은 경치가 천하절경인데다 기암괴석이 산재해 있어 ‘함북 금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천불봉이라는 해발 659m의 최고봉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9월 남한에 추석선물로 보낸 300명분의 송이를 채취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 일곱 가지 보물이 묻혀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 50호, 새 기획 북녘산책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를 purple0414@krlove.net 으로 8월 2일 일요일 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세계 최초로 ISO 22000 국제인증 받은 『신일염전』에서 생산한 명품소금, 『513 천일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겨레사랑 홈페이지 www.krlove.net 에서 팝업창을 확인해 주세요.